

양현종 QS→철벽 계투→이우성 홈런포 ... 기분 좋은 스윙



“넘어갔다!” KIA 타이거즈의 이우성이 19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시즌 6차전에서 1-1로 맞선 9회초 2사에서 상대 마무리 이용찬을 상대로 좌월홈런포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KIA, NC에 2-1 승리... 초반 투수싸움에 고전 이우성, 9회 2사 천금같은 홈런포... 1위 질주

‘호랑이 군단’이 공통안방에서 스윙을 거두고 1위를 굳게 지켰다.

KIA 타이거즈가 19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시즌 6차전에서 9회 타진 이우성의 솔로홈런으로 2-1 승리를 거뒀다. 1경기 차 1위로 2위 NC 홈구장을 찾았던 KIA는 싸늘이 3연승 포함 4연승을 기록하면서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KIA ‘베테랑’ 양현종과 시즌 첫 등판에 나선 NC 4년 차 이용준의 선발 맞

대결, 예상과 달리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됐다. KIA가 초반 이용준 공략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1회부터 김도영과 나성범이 삼진으로 물러나는 등 삼자범퇴, 2회에도 이우성이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도루 실패가 나오는 등 세 타자만 타석에 들어섰다. 이창진-김태균-박찬호가 나선 3회도 빠르게 공격이 마무리됐다. 4회 김도영이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으로 출루한 뒤 1사에서 나성범의 좌전안타가 이어졌지만, 최형우와 이우성이 연달아 우익수 플라리로 물러나면

서 ‘0’의 행진은 계속됐다. 5회 KIA가 침묵을 깼다. 1사에서 이창진이 2루 내야 안타로 출루했고, 김태균의 좌측 2루타가 나왔다. 1사 1·3루에서 박찬호의 타구가 좌익수 앞에 떨어졌고, 3루에 있던 이창진이 홈에 들어오면서 KIA가 선취점을 쟁겼다. 연속 3안타가 나왔지만 김도영의 3루 땅볼 때 3루 주자 김태균이 협살에 걸려 아웃되는 등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KIA 선발 양현종은 매 이닝 주자는 내보냈지만 홈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5회까지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양현종이 1-0으로 앞선 6회말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더하지 못했다. 선두타자 손아섭을 우전 안타로 내보낸 양현종이 서호철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했다. 양현종이

박건우를 상대로 유격수 땅볼을 유도, 병살타를 만들면서 2사 3루가 됐다. 양현종이 한 번에 투아웃을 채웠지만 데이비스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으면 서 승부가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6회까지 90구를 소화한 양현종은 7회 최지민에게 마운드를 몰려주면서, 6이닝 5피안타 2볼넷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상대 선발을 상대로 1점씩 뽑아낸 두 팀은 불펜 싸움을 전개했다. NC는 6회부터 임정호를 시작으로 한재승-김영규를 투입했다. 1-1로 맞선 9회에는 마무리 이용찬이 출격해 스윙 저지에 나섰다. 9회초 나성범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뒤 최형우도 1루 땅볼로 아웃됐다. 그러나 9회 2사에서 시원한 한방이 터져 나왔다. 앞선 세 타석에서 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 얻어냈

던 이우성이 이용찬의 3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리드를 가져오는 좌월 솔로포를 장식했다. 앞선 7회와 8회를 최지민과 장현식으로 막았던 KIA는 9회말 마무리 정해영을 출격시켰다. 권희동을 5구째 2루 땅볼로 처리한 정해영은 오영수와의 승부에서 6구째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1사 1루에서 박세혁이 타석에 섰다. 연달아 볼 2개를 던진 정해영이 3구 작구로 박세혁을 상대로 2루 땅볼을 유도했다. 공을 잡은 김선빈이 2루 베이스에 있던 유격수 박찬호에게 공을 넘겼다. 베이스를 짚은 박찬호가 1루로 공을 보내면서 병살타가 완성됐고, KIA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KIA에 스윙패를 당한 NC는 4경기 차 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삼성이 3경기 차 2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열리지 않는 골문 ... ‘애’만 쓴 광주FC

K리그1 13R 전복에 0-3 패...점유율·슈팅·유효슈팅 압도에도 코너킥 기회 맞살리고 득점 기회 번번히 막혀...리그 7위로 하락



광주FC가 최하위 전복 현대에게 다시 또 승리를 내줬다. 광주가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복과의 K리그1 2024 13라운드 홈경기에서 0-3패를 기록했다.

점유율과 슈팅·유효슈팅 수에서는 광주(62%·18개·11개)가 전복(38%·6개·4개)을 압도했지만 상대 골키퍼 정민기에 막혀 끝내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 광주가 페널티킥골로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25분 광주진영에서 공을 채내려던 이경희가 전복 이영재의 발을 걸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전반 27분 전복 송민규가 키커로 나서 광주 골대 오른쪽을 가르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31분 광주가 두 번째 골을 허용했다. 역습상황에서 오른쪽에서 치고 오른 전복 문선

민이 왼쪽에 있던 전병관에게 공을 넘겼다. 이어 전병관이 오른발 슈팅으로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두 골을 내준 광주가 빠르게 교체카드를 사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루키’ 문민서를 대신해 엄지성이 투입됐고, 안영규가 빠지고 포포비치가 그라운드에 올랐다. 전열을 가다듬은 광주가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전반 42분 박태준의 패스를 받은 최경록이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골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이경희 헤더가 빗나갔고, 최경록의 매서운 왼발 슛은 골키퍼 정민기에게 막혔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엄지성이 상대 수비진을 뚫고 오른발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공은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다. 득점에 실패한 광주는 바로 이어 전복에 세 번째 골을 내줬다. 전반 31분 골을 기록했던 전병관이 후반 1분, 이번에는 송민규의 도움을 받아 멀티골

을 장식했다. 3골을 내준 광주는 쉴 새 없이 전복 골대를 두드렸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17분 이경희의 터닝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고, 25분에는 엄지성의 오른발 대포알 슈팅이 골대 맞고 흘렀다. 4분 뒤에는 빅톤의 헤더가 바운드된 뒤 골키퍼 품에 안겼다. 후반 41분에도 경기장에 아쉬운 탄성이 쏟아졌다. 엄지성이 왼쪽에서 올린 공이 빅톤의 머리로 향했다. 빅톤의 헤더가 바운드 되면서 마침내 전복 골대 안으로 향하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골키퍼 정민기를 넘지 못했다. 후반 추가 시간 나온 엄지성과 김한길의 오른발 슈팅도 골대를 외면했다. 마지막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은 정호연의 오른발 슛도 높게 뜨면서 광주는 전복과의 시즌 두 번째 대결에서도 승점을 만들지 못했다. 광주는 앞서 전복 원정에서도 1-2패를 기록했다.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광주는 6위에서 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승리를 거둔 전복은 대전하나시티즌을 최하위로 끌어내리고 11위에 자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최경록(왼쪽)이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복현대와의 경기에서 공을 드리블하고 있다. <광주FC 제공>